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밴쿠버 출장자료

【 목 차 】

I.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무역 및 투자 현황	9
IV. 캐나다 서부지역 경제개황	12
[별첨] 현지 체류 참고자료	17





I. 체류 정보

1. 밴쿠버 기후

-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높음.

2. 체류 유의사항

☐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차림(양복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입 가능

☐ 시차

- 한국표준시간 KST -16시간 (썸머타임 기간)
 -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썸머타임(+1시간)적용: 3월 12일(日) ~ 11월 4일(토)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다운타운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지역은 슬럼가로 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가됨. 식당 이용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0-15%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손님 이용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부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 현금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3. 입국 비자

☐ 1994년 한-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6개월 미만은 무비자 방문 가능

- 2016년 11월 10일부터 항공편 입국시 온라인 입국허가(eTA) 취득 필요 (캐\$7 소요)
- 입국 심사시 입국목적, 체류기간, 휴대품(샘플 등)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4. 주요 연락처

☐ 밴쿠버무역관

- 주 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 화 : +1-604-683-1820 / 팩 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II. 캐나다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3,650만명 (2017.1월)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도시	Toronto(606만 명), Montreal(403만 명), Vancouver(247만 명), Ottawa (132만 명), Calgary (141만 명), Edmonton (133만), Quebec City (80만) 등
언 어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3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David Johnst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10.10월 (임기 5년+)
	○ 수상: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최근 경제 개황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CAD	1.823조	1.898조	1.983조	1.986조	2.026조
1인당 GDP	CAD	52,454	53,975	55,972	55,405	56,060
실질경제성장률	%	1.7	2.5	2.6	0.9	1.4
물가상승률	%	1.5	0.9	2.0	1.1	1.2
실업률	%	7.3	7.1	6.9	6.9	7.0
대미환율	CAD/USD	1.00	0.97	0.91	0.78	0.77
수출	CAD	4,615억	4,792억	5,284억	5,249억	5,212억
수입	CAD	4,748억	4,874억	5,246억	5,479억	5,473억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2017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2017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을 1.8~2.2%로 예상, 2018년에는 1.9~2.1% 경제 성장을 전망
 - BC주는 투자유입 증가, 미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증가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3.6%) 기록할 전망
 - 제조업(동부), 부동산(서부) 부문 성장세 지속될 전망
 - 향후 10년간 교량, 대중교통 등 SOC에 600억 달러 투자 예정
-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7년 1분기까지 기존 금리(0.5%)를 유지할 전망
 -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5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1월, 7월)
 - 2015.4분기 기준,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165.4%) 사상최고치 기록
- (대미환율) 미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재 대미 환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함
 - 3.2일 기준 0.75센트이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상품교역) 환율약세와 대교역국인 미국의 경제회복세로 인해 캐나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미수출이 경제회복 견인 기대



3. 캐나다 대외 무역

□ 수출입 동향

- 2016년 캐나다 대외무역은 에너지 관련 상품 수출 감소, 캐나다달러의 약세로 감소를 기록

<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US\$백만,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증감('16/'15)
수출	458,260	476,940	409,806	389,933	-4.85%
수입	461,867	463,746	419,384	402,498	-4.03%
무역수지	-3,607	13,194	-9,579	-12,565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국가별 수출입

- 캐나다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일본, 영국, 독일 등임.
 - 미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최근 3년간 각각 65%, 55% 수준을 유지
 - 한국은 수출입 각각 6위 기록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

(단위: US\$백만)

수출				수입			
국가명	2014	2015	2016	국가명	2014	2015	2016
미국	366,425	314,499	297,720	미국	252,163	223,216	210,125
중국	17,470	15,775	15,827	중국	53,136	51,344	48,578
영국	13,782	12,474	12,903	멕시코	26,105	24,398	25,012
일본	9,742	7,646	8,092	독일	14,455	13,576	13,005
멕시코	5,118	5,199	5,758	일본	12,062	11,555	11,924
한국	3,782	3,143	3,298	한국	6,560	6,445	8,000
독일	2,826	2,825	3,065	영국	8,336	7,191	6,201
인도	2,918	3,376	2,958	이탈리아	5,815	5,763	5,690
프랑스	2,999	2,453	2,579	프랑스	5,398	5,321	4,508
벨기에	3,192	2,444	2,291	대만	4,187	4,268	3,832
기타	46,009	39,026	35,411	기타	75,529	66,309	65,622
수출총계	476,940	409,806	389,933	수입총계	463,746	419,384	402,498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품목별 수출입

-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석유가스, 정제유, 금, 제재목 등 에너지 자원과 산업용 원재료, 승용차, 자동차부품, 헬리콥터 등임
 - 캐나다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약 80%를 미국으로 수출
 - 원유, 정제유, 석유가스 등 석유관련 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원유와 승용차는 캐나다의 최대 수출품인 동시에 최대 수입품
 - 다수의 캐나다 석유기업이 해외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 후 수입
 - 저유가로 인해 석유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원유, 화물차, 기계, 중장비 등은 수입이 크게 감소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15	2016	증감	품목	2015	2016	증감
1	승용차	44,844	48,823	8.9%	승용차	26,275	26,395	0.5%
2	원유	50,161	39,513	-21.2%	자동차부품	19,885	20,564	3.4%
3	금	12,411	12,458	0.4%	화물차	11,877	12,980	9.3%
4	자동차부품	10,917	10,604	-2.9%	정제유	11,906	11,020	-7.4%
5	정제유	11,427	8,119	-28.9%	원유	13,155	10,909	-17.1%
6	액화석유가스	9,204	7,831	-14.9%	전화기	9,580	8,999	-6.1%
7	제재목	6,922	7,797	12.6%	자동차자료처리기기	7,893	7,792	-1.3%
8	의약품	6,639	7,362	10.9%	의약품	7,541	7,223	-4.2%
9	항공기	8,288	6,208	-25.1%	금	6,543	5,593	-14.5%
10	가스터빈	4,780	5,208	9.0%	엔진	4,074	4,904	20.4%
	총계	165,593	153,923	-7.0%	총계	118,729	116,379	-2.0%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4. 캐나다 시장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로 나뉘며 두 지역간 주요 산업 및 특징이 다름.
 -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시아,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약75%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유통망 본사 소재
서부	BC, 알버타, 사스캐처원	약25%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임수산물, 광물 * AB,SK주: 광물,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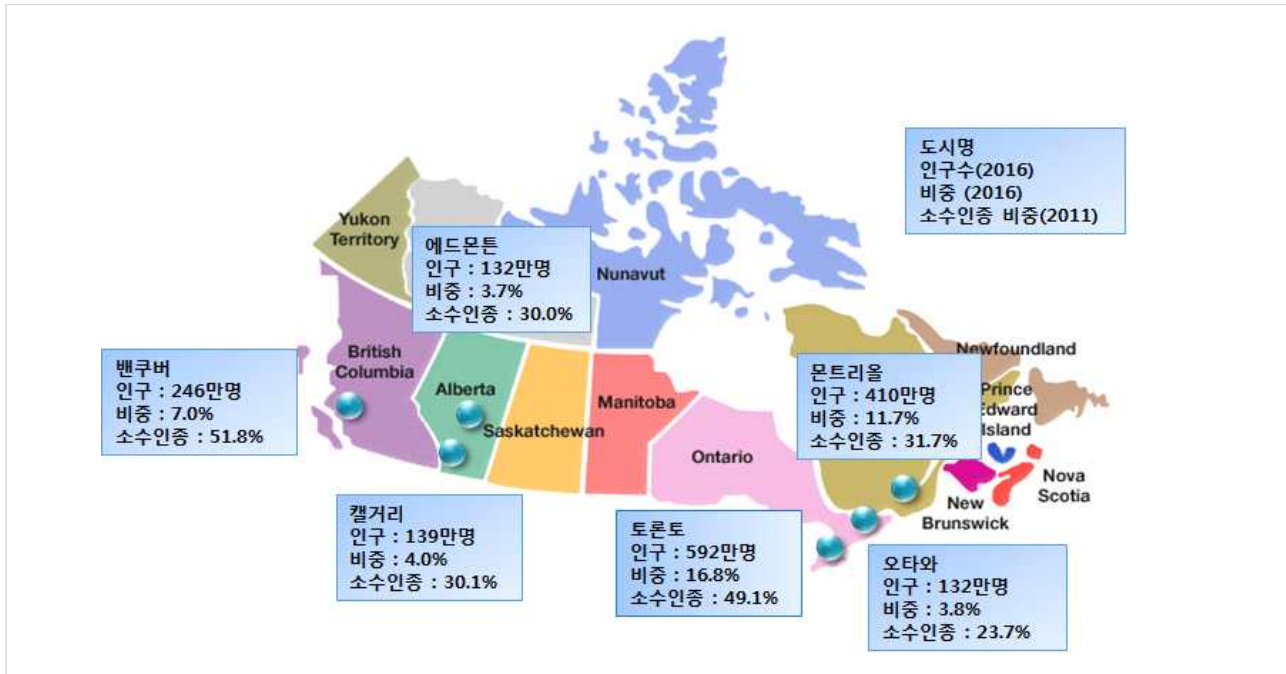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전체의 약 66% 차지 (수출 77%, 수입 54%)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국가제품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아시안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6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제품별 상이한 유통망의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III. 한·캐 무역 및 투자 현황

1. 한·캐 무역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16년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48.9억 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39.4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및 부품, 휴대폰, 철강 등은 수출이 감소하고 철구조물은 크게 증가
 - 동광, 펄프, 의약품 등 제외한 상위 수입품목 대부분의 수입액이 감소, 국제 원부자재 가격의 약세도 수입액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
- * 2016년 기준, 캐나다는 한국의 25위 수출대상국(0.99%), 19위 수입대상국(0.97%)
(2015년 각각 21위, 24위)
- *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70.3%, 수입비중은 59.8%

< 한국의 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US\$백만)

순 번	수 출				수 입			
	품목	2015	2016	증감	품목	2015	2016	증감
1	승용차	1,969	1,899	-3.6%	유연탄	852	663	-22.2%
2	철구조물	170	723	325.3%	동광	468	554	18.4%
3	자동차부품	229	214	-6.6%	펄프	220	226	2.7%
4	무선전화기	315	181	-42.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1	219	606.5%
5	타이어	94	94	0.0%	칼륨비료	155	138	-11.0%
6	원동기	9	83	822.2%	철광	133	124	-6.8%
7	합성수지	68	73	7.4%	의약품	40	123	207.5%
8	펌프	62	63	1.6%	가축육류	102	113	10.8%
9	철강및비합금 강형강	69	60	-13.0%	원목	133	112	-15.8%
10	섬유기계	46	45	-2.2%	식물성유지	70	86	22.9%
	수출 총계	4,623	4,885	5.7%	수입 총계	3,983	3,943	-1.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2. 한·캐 투자 현황

□ 한국기업의 對 캐나다 투자

- (연도별) 2016년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6.6억불) 대비 95.5% 증가한 12.9억불을 기록 (송금 기준으로는 전년(5.6억불) 대비 25.4% 증가한 7.1억불)
- 2011년 189억 달러, 2014년 15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 2015년 부터 2016년 1/4분기까지 이어졌던 감소 추세에서 반등
- * 신고기준: 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사전 신고한 금액
송금기준: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
- ⇒ 투자 상대국의 상황(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실제 송금액은 변동가능한 점 등을 감안, 기업의 해외사업 전략을 반영한 신고기준을 사용

< 한국기업의 對캐나다 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 >

(단위 : US\$백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금액	1,887	878	882	1,519	660	1,290
신고건수	99	102	83	102	89	109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등

- (분기별) 2016년 4/4분기 기준,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신고기준)는 前분기(16건 0.61억불) 대비 1,175% 증가한 44건 7.78억불을 기록, 연말 집중 추세를 보임. 전년 동기(0.79억불) 대비 884% 증가
- 2014년 1/4분기(8.06억불) 이후 최대 규모
- (업종별) 2016년 對캐나다 직접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광업(11억불), 금융보험업(1.18억불), 제조업(0.34억불), 도소매업(0.13억불) 順이며,
- 제조업(-72.8%), 도소매업(-23.5%)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광업(178%) 및 금융보험업(87.3%) 투자는 급증함. 매년 투자 금액의 60~90% 이상이 광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캐나다의 對 韓 투자 동향

- (연도별) 2016년 기준 캐나다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 (12.7억불) 대비 74.3% 감소한 3.26억불을 기록, 2009년 기록한 3.03억 달러 이후 연간 최저치를 보임
- 2015년 기록 대부분은 캐나다국민연금(CPP) 투자위원회의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된 투자로 인한 것(7.9억 달러)으로 동 건을 제외할 시 2015년 4.8억 달러를 기록, 2016년 감소폭이 32%로 줄어들고 신고 건수는 20건(38.5%) 증가

< 캐나다의 대한투자 신고금액 >

(단위 : US\$백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금액	739	394	388	572	1,268	326
신고건수	38	38	60	51	52	72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 (분기별) 2016년 4/4분기 기준, 캐나다기업의 대한투자(신고기준)는 18건 84.6백만불을 기록, 전년 동기(1,016백만불) 대비 급감
- 10억불을 상회하는 2015년 4/4분기 기록은 상기된 캐나다국민연금의 금융·보험업 분야 대규모 투자건의 영향을 받음
- (업종별) ‘15년도 대한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금융·보험업(7.86억불), 부동산·임대업(1.48억불), 식품제조업(1.35억불), 화공업(0.86억불) 順이며,
- 2015년 대비 금융·보험업(7.9억→1.1억불), 제조업(2.9억→1.1억), 식품 (1.35억→2백만), 부동산·임대업(1.5억→0.35백만) 등 주요 산업분야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2백만→1억) 등 기타 분야는 증가함
- 2011년 이후 제조업 분야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서비스업 분야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부동산·임대업 분야의 경우 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14~16년 사이 : 2.5억→1.5억→0.35백만)

IV. 캐나다 서부지역 경제개황

1. 지역현황

□ 개요

- 캐나다 서부지역 3개주, 브리티시컬럼비아(BC), 앨버타(AB), 사스캐추언(SK)
- 영토는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980만명 정도로 1/5 수준
- 경제규모는 실질 GDP가 C\$5,600억 달러에 달하며 캐나다 전체 GDP의 28% 차지



□ 주요경제지표

- 2016년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AB, SK 주 마이너스 성장 기록
- BC 주, 지난 해 전 업종이 고른 성장을 보이며 2년 연속 고성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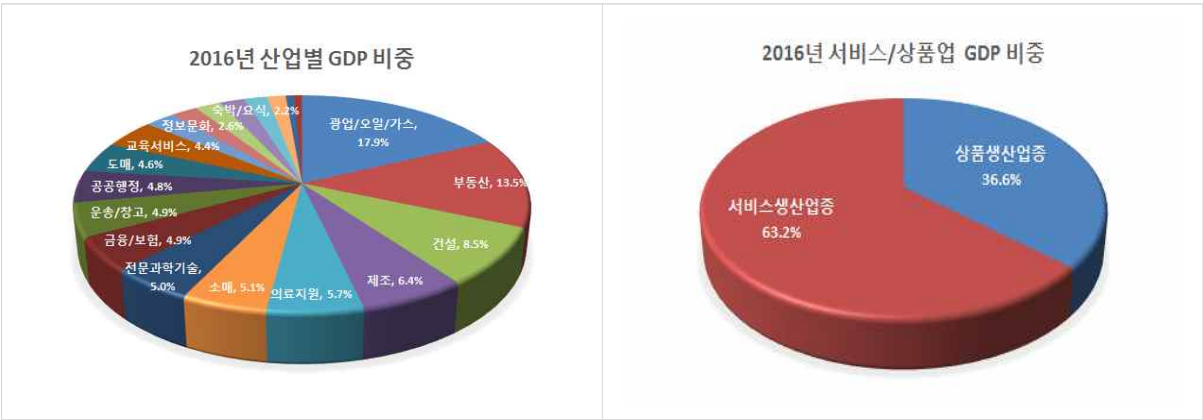
구분	단위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사스캐추언
실질GDP	C\$조	0.22	0.29	0.06
1인당 GDP	C\$	47,064	70,841	53,560
실질경제성장률	%	3.7	-3.8	-1.0
실업률	%	6.0	8.0	6.7
무역총액	US\$억	670	787	268
상품 수출	US\$억	303	598	200
상품 수입	US\$억	367	189	68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산업 및 경제동향

□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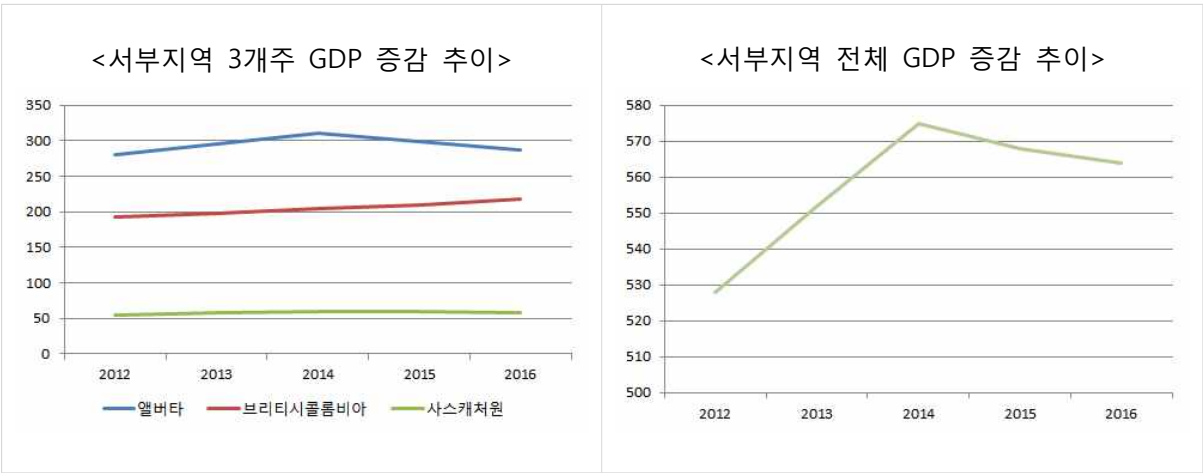
- 서비스 생산업종(도소매, 운송, 금융, 부동산 등)이 전체 GDP의 63.2%, 상품 생산업종은 36.8%를 차지
 - 하지만 GDP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4개 업종 중 3개 업종은 상품 생산업종
- 서부지역 GDP에서 광업/오일/가스 산업(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부동산업(13%), 건축업(9%), 제조업(6%) 순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경제동향

- 2014년 글로벌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이후 서부지역 GDP 성장률 감소
 - 산업별로 건설(-10%)과 광업/오일/가스(-4%) 업종이 큰 폭 하락을 보임
 - 하지만 2016년 하반기 유가안정화에 힘입어 2017년 2% 대 경제성장 전망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3. 무역현황

□ 교역동향

-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흑자무역 지속
 - '16년 서부지역 수출은 US\$11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감소, 수입은 US\$620억 달러를 기록하며 10% 감소
 - 지난 5년간 무역흑자 규모는 US\$720억 달러
- BC주는 수입>수출, AB와 SK주는 수입<수출
 - '16년 BC주는 US\$63억달러 적자, AB주와 SK주는 각각 US\$409억달러, US\$131억 달러 흑자 기록

□ 주요 수출입 품목

- 서부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목재, 유채씨, 유연탄, 곡물
 - '16년 유채씨와 유연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품목 수출실적 하락
- 주요 수입품목은 경유, 자동차 및 그 부품, 원유, 비행기, 포도주 등

<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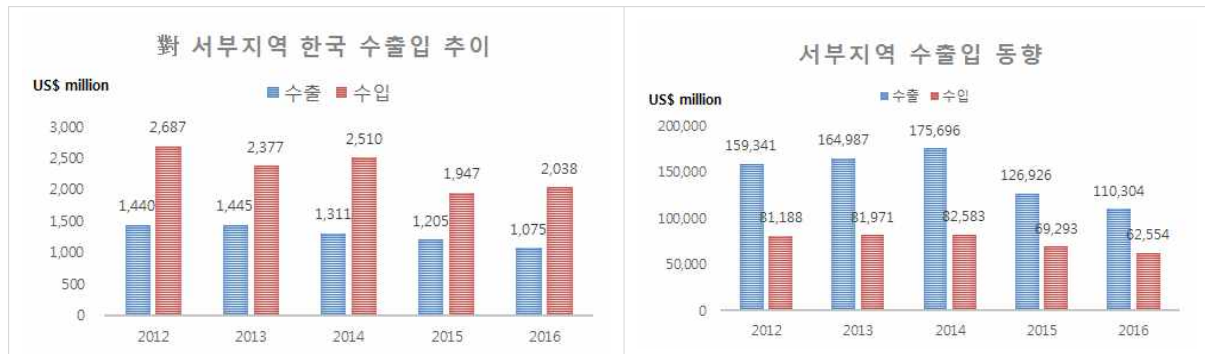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15	2016	증감	품목	2015	2016	증감
1	원유	46,972	36,181	-22.9%	경유	3,710	4,071	9.7%
2	천연가스	7,419	6,007	-19.0%	기타 석유	1,071	943	-12.0%
3	침엽목재	5,093	5,029	-1.2%	자동차 (1500cc~3,000cc)	939	909	-3.1%
4	유채씨	3,302	3,603	9.13%	원유	1,034	874	-15.5%
5	염화칼륨	5,190	3,516	-32.3%	비행기 (15,000kg 이상)	1,199	559	-53.4%
6	유연탄	2,497	3,175	27.1%	음성/영상기기	496	520	4.8%
7	밀/메슬린	3,077	2,127	-30.9%	탭/밸브 장치	671	485	-27.7%
8	동광/정광	2,333	2,063	-11.6%	아연광	415	483	16.4%
9	목재 펄프	2,833	1,935	-31.7%	포도주	421	402	-4.5%
10	에틸렌 중합체	1,970	1,825	-7.3%	점화용기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용)	354	349	-1.4%
	총계	80,690	65,461	-18.8%	총계	10,312	9,595	-6.9%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한국과의 교역관계

- '16년 한국의 對 서부지역 수출 US\$10억 달러, 수입 US\$20억 달러 기록
 - 서부지역 3개주와의 지난 5년간 무역수지 US\$10억 달러 적자
- '16년 AB주와의 교역에서 US\$4400만 달러 흑자 전환
 - 원자로/기계류 수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對 AB 주 수출성장 견인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주요 수출입 품목

- 對 서부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철강, 전기기기 및 부품
 - 반면 주요 수입품목 광물성 연료(원유), 알루미늄, 펄프, 곡물 등

< 한국 對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15	2016	증감	품목	2015	2016	증감
1	원자로, 기계류	488	430	-12.6%	광물성 연료	538	667	23.8%
2	철강 제품	126	129	1.6%	알루미늄	32	226	603%
3	전기기기	163	127	-21.6%	판지	170	158	-6.6%
4	철강	127	102	-19.8%	목재	170	143	-15.6%
5	플라스틱	73	72	-1.0%	동/식물성 기름	82	82	0.4%
6	고무	28	25	-10.5%	곡물	44	37	-16.9%
7	광학/의료기기	16	13	-18.3%	조제 식료품	25	30	20.1%
8	종이, 판지	14	11	-22.0%	채유 종자	9	19	103.9%
9	전분	10	11	6.2%	맥아, 전분	15	16	6.6%
10	알루미늄	14	10	-25.8%	채소, 과일	9	15	70.7%
	총계	1,059	930	-12.2%	총계	1,094	1,393	27.3%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4. 2017년 경제전망

□ 브리티시컬롬비아

- 브리티시컬롬비아 정부, 올해 2.2% 경제성장 전망
 - 재무부는 2017년~2018년 BC주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 이후 2019~2021년까지 2%대 성장 예측
 - 캐나다 경제전망위원회(Economic Forecast Council)는 BC주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8년~2021년까지 성장률은 재무부 예측치보다 0.1% 높은 2.1%~2.2%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
 - 내수 경기가 성장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앨버타

- 앨버타 정부, 올해 2.6% 경제성장 전망
 - 유가 안정화에 힘입어 오일 생산량 확대와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와 포트 맥머리 재건 사업 또한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 및 기업투자 하락으로 경제회복 속도는 다소 더디질 것으로 예상
 - 실질GDP는 2019년까지는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사스카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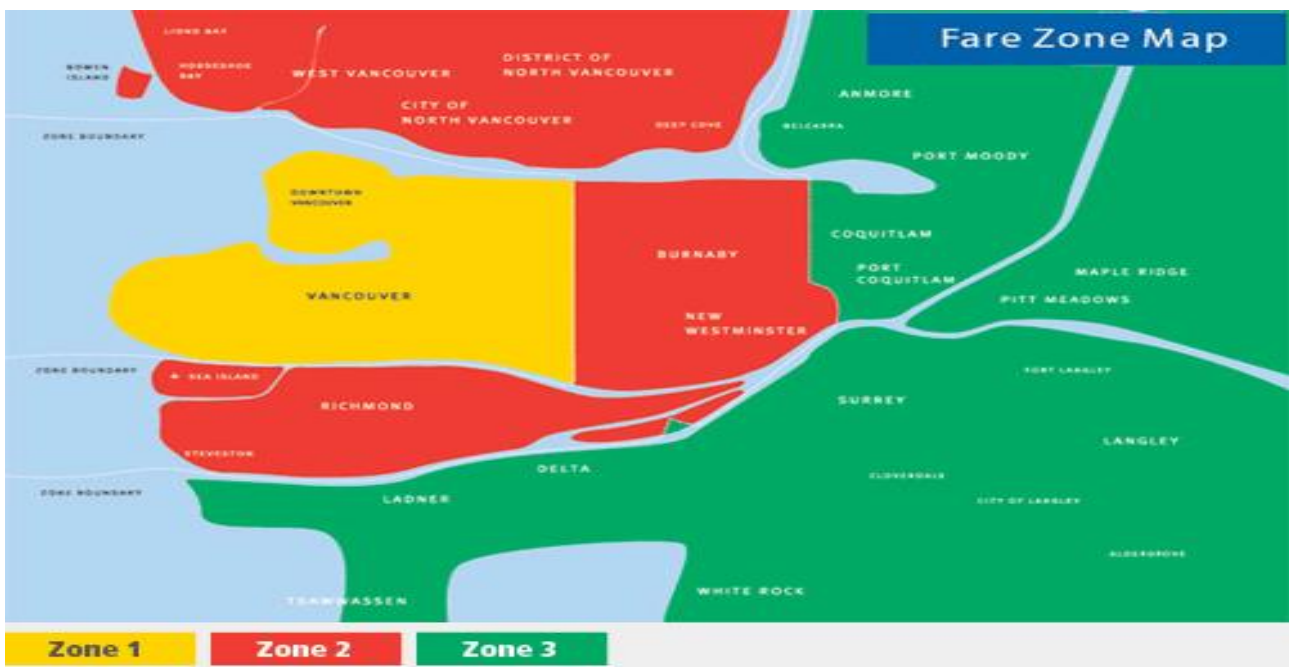
- 사스카추언 정부, 올해 0.8% 경제성장 전망
 -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원 시추작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WTI 석유가격 배럴당 55달러 예상, 원유 시추량 15% 증가 기대)
 - 향후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지역 수출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농업 부문에서는 2016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는 등 2017년에도 전년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2017년 신규 일자리 창출 1,200개 예상. 2018년 실질 GDP 성장률 2.0% 전망

[별첨]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기사에서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작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	604.682.4032	1368 W. Pender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식품 취급점

식품점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quitlam)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여행사

여행사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www.kotra.or.kr